3/22/26

바울의 300%

Sunday 1st Message

2 Tim 4:9-18

모든 피조물은 근본 문제에 묶여 있습니다. 그것은 원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원인은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을 멸하는 것이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기에, 창세기 3 장 15 절이 주어졌습니다. 언약이 인류에게 완전히 회복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피조물은 근본 문제의 저주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이 저주를 정복하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 장에서 주님이 마귀를 이기셨을 때, 사용하신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이 사용하신 말씀은 새롭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1,500 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주님은 그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새것이나 옛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므로, 말씀은 시간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나에게 임한 말씀이 단 한 마디라도 있다면, 그 한 마디 말씀으로 나는 사탄을 정복하고 사탄으로 인해 온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있다면 과거의 상처는 나에게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각인, 뿌리, 체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 사탄으로 인해 온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은 그리스도의 피이며, 그 피가 역사하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만약 내가 평생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반드시 운명을 정복하고 내 생명을 살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내 평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반드시 정복하고 살려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는 그 한 마디 말씀이 여러분 평생의 언약이 되기를 바랍니다.

---

1. 바울의 300%

1. 이것은 우리가 깊이 배워야 할 바울의 300%에 대한 내용과 정신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전문성, 현장감, 그리고 지속을 위한 시스템이라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든 이와 같아야 합니다. 전도자로서 바울은 이 세 분야에서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경적 전도를 완성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2. 첫째로, 그의 복음에 대한 전문성은 독보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그는 핵심을 찌르는 간결하면서도 정확한 논리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당시 종교에 대해 언급한 몇 가지 사항들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만큼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첫째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매우 터무니없는 주장이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격렬한 분열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파했으며,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진 기적과 말씀을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4. 하지만 다른 사도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일관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와 같은 민감한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할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할 만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신자들조차 그리스도를 믿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가 불필요함을 확고히 했으며, 로마서 4 장에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도 이미 구원을 받았음을 구약 성경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5.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 또한 큰 쟁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종교적 전통에 묶여 있었기에, 다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그 위대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음을 매우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쳤지만, 바울은 이 주제에 대해 '로마서'라는 책 한 권을 통째로 썼습니다. 성서학자들은 로마서의 주제를 "이신칭의"라고 요약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통해 의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6. 히브리서의 저자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는 문체와 내용을 근거로 이 책을 바울의 저작으로 간주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언약의 피에 대한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그의 명백한 신앙 고백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리스도와 언약의 피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많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7.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복음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성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가 매우 정확했기에, 그가 직접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적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현장감이었습니다.
8. 이러한 폭발적인 사역이 지속된 결과, 그의 주위에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가 없다면 이 사역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이 복음 운동은 세대를 거쳐 전수되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고 땅끝까지 전달되어야 하는데, 제자가 없이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복음과 폭발적인 현장 덕분에 많은 제자가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9. 오늘 본문 9 절부터 22 절까지에는 17 명의 제자가 이름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기록은 로마서 16 장에 있으며, 고린도전서 16 장과 골로새서 4 장에도 많은 제자의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바울의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고, 파송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보고를 받는 일을 포함했습니다. 물론 그는 현장에 가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사역은 제자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10. 문제는 우리도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정확한 복음에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사용하여 이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고, 그의 설명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그다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현장감과 제자 시스템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소유한 사람,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위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11. 하나님은 복음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두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해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엄청난 이점이 됩니다.
12. 만약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나눌 준비가 된다면, 우리 인생에 열리는 문들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훈련의 삶을 살고 메시지를 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도 300%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축복을 받아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